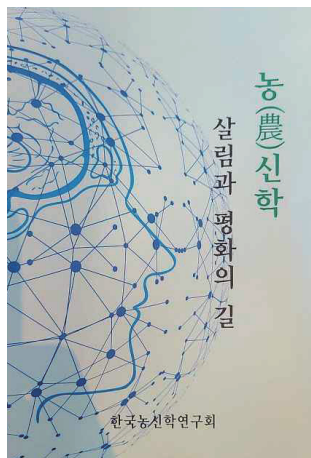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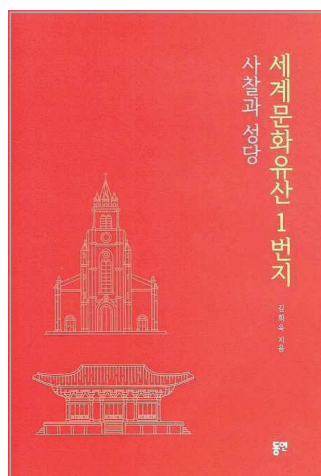
## ● 농(農)신학 - 살림과 평화의 길



이 책은 지난 1년 동안 소수의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생각을 모아 연구해 온 첫 열매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농신학의 내용들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도시를 포함하여 근대문명의 심각한 폐해를 경험하는 것이 일상이 된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사고와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도전을 준다. 그 주제들과 관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고와 삶의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신학연구회/비매품 010-2416-8098

## ● 세계문화유산 1번지-사찰과 성당



사찰과 성당 건축양식의 심미적인 연구에 주력해 온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를 불교와 기독교 간의 신앙적 건축양식과 그 비교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세계미술사의 새로운 종자 하나를 심는 심정으로 펴냈다고 한다. 저자는 모태 기독교 신앙인으로 기독교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찰과 성당의 건축양식을 비교하는 작업을 통하여 인간의 종교적 영적세계의 보편성을 밝히려고 하였다.

김희옥/ 동연/ 35,000원

계간  
농촌과목회  
2021  
봄호

기획특집 / 농신학과 도시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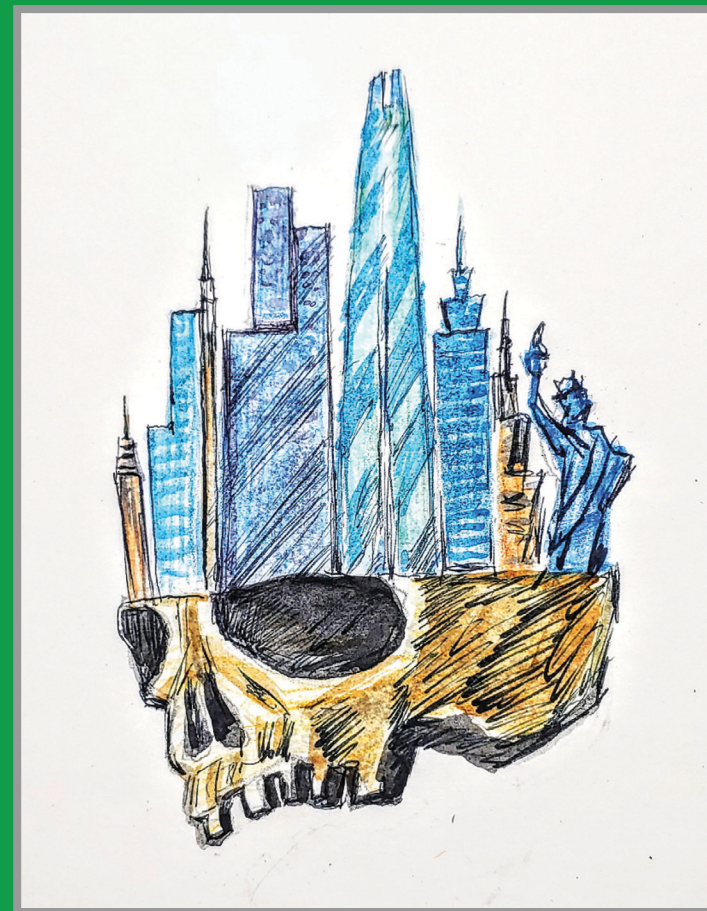
통권 89호

· 2021 년 봄호

# 농촌과목회

농촌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전문 계간지

기획특집 / 농신학과 도시문명



농촌과목회 편집위원회

통권 89



김재룡 목사

농촌운동을 독립운동  
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농촌운동과 생명  
농업운동에 헌신하였  
다. 전남 광양이 고향  
인 김 목사는 1921.  
6. 6일에 나고 2008.  
7. 2일에 소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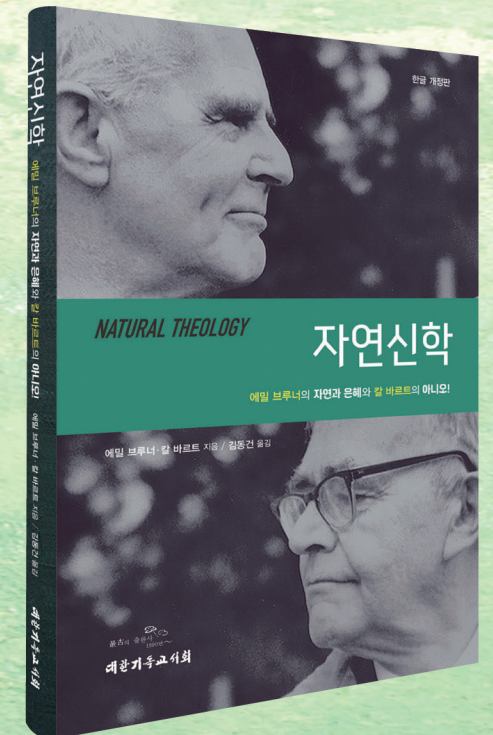
1960년대 중반부터 임실을 협동조합운동과 치즈 생산을 통하  
여 변화시킨 지정환 신부(왼쪽)와 심상봉 목사(오른쪽). 사진  
은 2018년 임실치즈마을 추수감사제에 참석했을 때 모습. 지  
신부는 2019년 4월 13일에 선종하였고, 심 목사는 팔순의 고  
령이지만 여전히 활동 중이다.

# 시대를 초월한 신학의 고전 브루너와 바르트의 계시논쟁!

## 자연신학

에밀 브루너 · 칼 바르트 지음  
김동건 옮김 | 신국판 | 176쪽

20세기 최대의 관심을 모았던 에밀  
브루너와 칼 바르트의 '계시논쟁'을  
수룩한 책. 브루너의 『자연과 은혜』  
와 그에 대한 응답인 바르트의 『아  
니오!』는 발표되자마자 신학계의 주  
목을 끌었으며, 신학의 고전이 된 지  
오래다. 이 책은 이 두 권을 하나로  
묶어낸 것으로(1946), 두 사람의 견  
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저  
명한 교의학자 존 베일리의 탁월한  
서문이 실려 있다.



“이 책을 통해 계시에 대한 바른 이해에 따라  
우리 사회와 역사를 해석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환기되기를 바란다.”

김동건(영남신학대학교 교수)